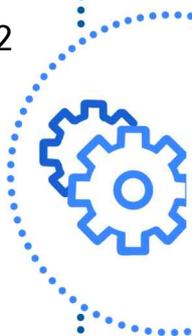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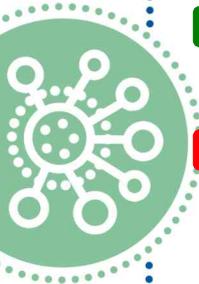




목 차

	모빌리티 동향	11
해외	- 美 보스턴, 구글 ‘프로젝트 그린 라이트’의 시로 교통 혼잡도 감소	11
	- 전기차도 무선 충전...10분에 절반 채웠다	12
정책	- 전세계서 불타는 전기차...정부·제조사 느슨한 관리 강화부터	13
	- 수소버스 확대로는 한계...충전인프라 대폭 강화해야	14
	- 크루즈 모드 믿고 달리다 ‘꽁’...올해만 9명 숨져	15
	-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충전온다’...아론, 중기부 팁스 선정	16
PM UAM	- 지쿠, 국내 PM업계 최초 ‘수소 전기 자전거’ 자체 개발	17
	- 섬 지역 드론배송 8월부터 본격 시행	18
	- 실외 이동로봇 운행 실증 시연회 개최	19
	- 난폭 운전 일삼는 ‘따릉이 폭주족’...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들	20
기업	- 캠핑장엔 장작·생수 나르는 ‘개미’도 있다	21
	- 현대차기아, 인도네시아서 AAM 사업 첫 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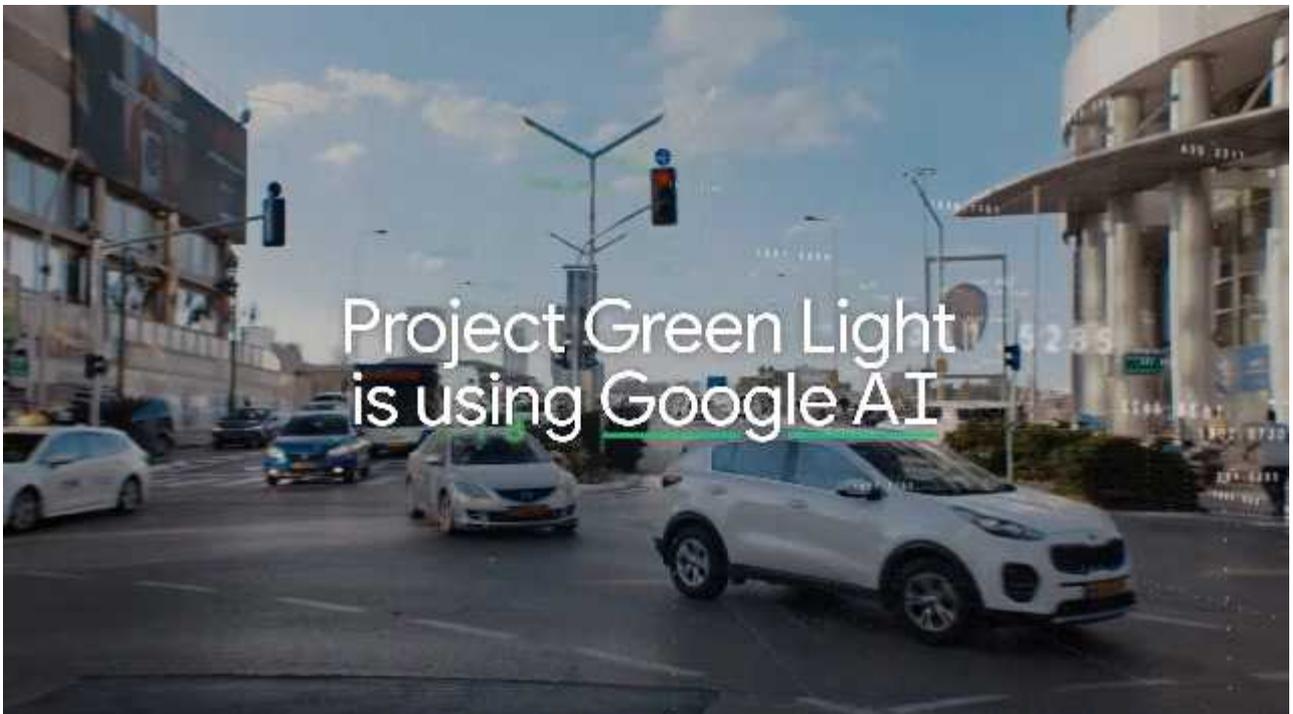




美 보스턴, 구글 ‘프로젝트 그린 라이트’의 시로 교통 혼잡도 감소

- 미국 보스턴 시가 구글의 ‘프로젝트 그린 라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혼잡도를 50% 이상 감소시키는 등 교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교통 혼잡이 심한 도시인 보스턴의 교차로 3곳*에서 신호 타이밍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정지를 줄이는 AI 기술을 적용하여 차량 정체를 50% 이상 감소시킴
 - * 헌팅턴 애비뉴, 오페라 플레이스, 애모리 스트리트
 - 또한 시 관계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평균 10%의 배출가스 감소를 기대

<구글의 ‘프로젝트 그린 라이트’>



- 보스턴 시는 AI 기술을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 도시의 변화를 가속화할 계획
 - 보스턴 시는 자동차 사용이 불가피한 보스턴 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UPS 배송 차량, 구급차, 대중교통 버스 등 필수적인 차량의 이동을 고려한 AI 기반의 교통 관리를 도입 중
 - 또한 공공 기록의 가독성 개선 등 다양한 도시 서비스에 적용하여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위협 요소에 대비하고자 함

출처 : 인공지능신문(2024.08.13.) 美 보스턴, AI로 교차로 교통 혼잡도 50% 감소...구글 ‘프로젝트 그린 라이트’와 신호 체계 최적화





전기차도 무선 충전...10분에 절반 채웠다

- 전기차 보급의 증가와 함께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 문제가 되면서 미국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ORNL)에서 개발한 전기차 무선 충전 시스템이 해결방안으로 떠오름

-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은 대체로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원리*에 기반하며 충전 패드의 코일에서 생성된 자기장이 차량의 코일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전류를 생성

*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장이 인근에 있는 다른 전선에 전류를 유도하는 원리

<미국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전기차 무선 충전 시스템>



- 오크리지연구소 연구팀이 개발한 무선충전시스템은 경량 전기 자동차를 스마트폰보다 빨리 충전하는 270kW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탑재
- 포르쉐의 전기차 '타이칸'용으로 설계된 전력 수신기 코일은 기존 시스템보다 8~10배 더 높은 전력 밀도를 보여 배터리를 95%의 효율로 10분 만에 50% 채울 수 있으며, 충전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단되도록 설계
- 국내에서도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나 상용화까지는 기술 발전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전망
 - 현대차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네시스 GV60' 전기차를 시연한 뒤 '전기차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한 무선 통신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출원
 - KG모빌리티도 CES 2024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토레스EVX' 전시

출처 : 조선비즈(2024.07.29.) [뉴테크] 전기차도 무선 충전...10분에 절반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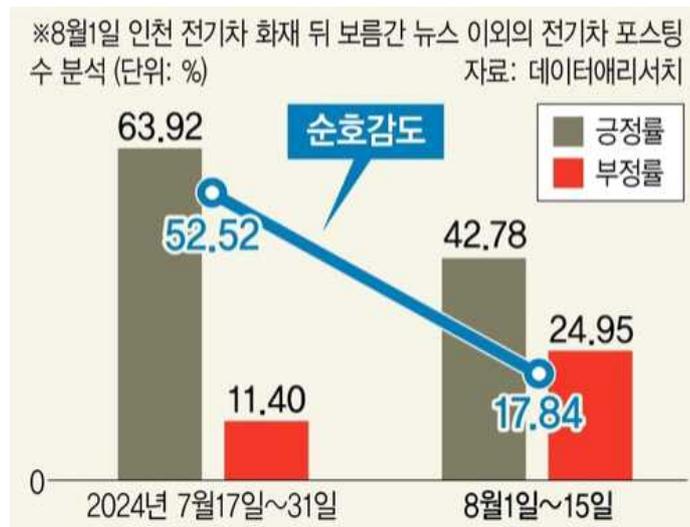




전세계서 불타는 전기차...정부·제조사 느슨한 관리 강화부터

- 한국과 미국, 중국, 포르투갈 등 전세계 곳곳에서 전기차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전기차 배터리로 쓰이는 리튬 2차 전지는 충전 때와 방전 때 양극과 음극 간 이온이 이동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과충전이나 과방전 상태일 때 불안정성이 커짐
 - 이 때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불꽃이 튀는 쇼트(Short circuit)현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1,000°C 까지 치솟으며 옆에 있는 전지들까지 연속해서 터지는 열폭주로 이어지는 대형 화재가 발생
 - 특히 2차 전지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는 전기차의 경우 위험이 더 크고 전기차 내부 깊숙한 곳에 밀폐되어 있어 외부에서 소화기나 물로 끄기도 어려움
 - 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인 흠(fume)이 나와 지하주차장과 같이 밀폐된 곳에서 더욱 위험

<인천 전기차 화재 전후 전기차 호감도 비교>



- 한국의 경우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로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진입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판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권고
 -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충전율 90% 이상인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제한하고
 -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지 공개하도록 모든 완성차 업체에 권고, 현대차를 시작으로 테슬라까지 국내 판매 주요 13개 완성차 브랜드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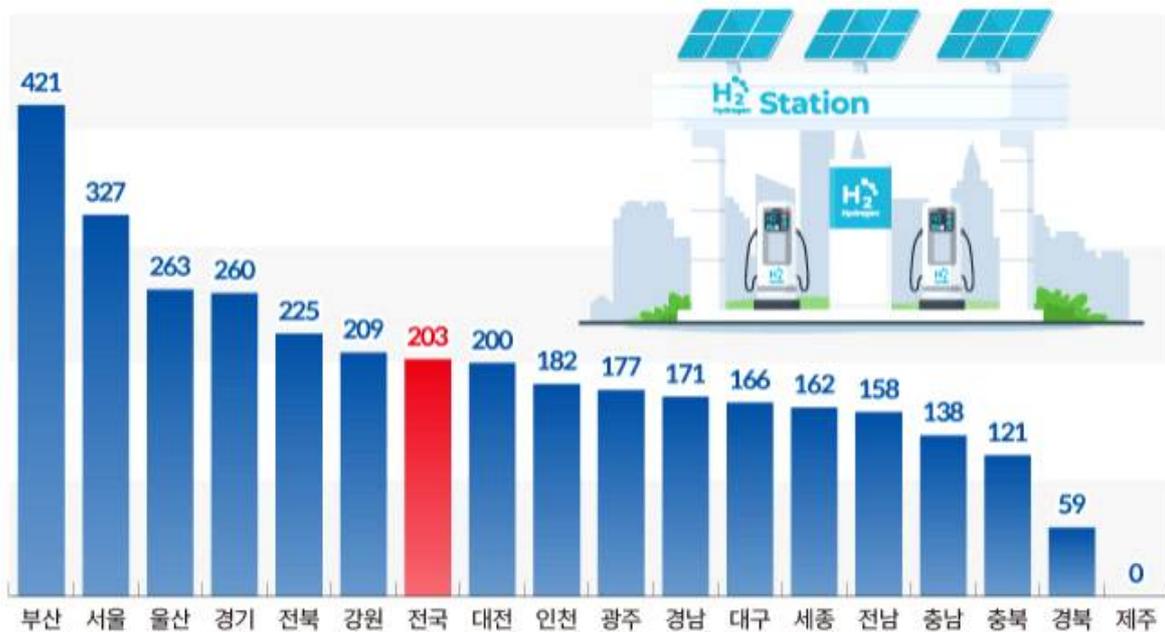
출처 : 한겨레(2024.08.19.) 전세계서 불타는 전기차...정부·제조사 느슨한 관리 강화부터
이데일리(2024.08.16.) '테슬라도 합류'...車업계, 국내 판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모두 공개



수소버스 확대로는 한계...충전인프라 대폭 강화해야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30만 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충전 인프라의 부족으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수소차 등록 대수는 30만 대의 약 12%에 해당하는 35,987대에 불과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6년 동안 매년 44,000대 이상 보급해야 함
 - 수소차 증가에 따라 충전소 수요도 증가하는데 님비 현상과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규정* 등으로 도심 내 충전소가 부족하고 충전의 편리성이 저하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등과 최소 17m 떨어져야 하며 고압가스관리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수소 충전을 담당할 수 있어 셀프 충전이 불가
-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의 보강과 수입 수소차에 대한 관세 인하가 필요
 - 도심 중심의 충전소를 확대해야 하며 전국민 90% 이상에게 9km 이내에 충전소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460곳 이상의 충전소가 필요

<지자체별 충전소 1곳당 수소차 대수 비율 비교(단위: 비율(수소차/충전소))>



[자료=환경부][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NEWSPIM

- 정부는 인천, 대구, 창원에서 셀프 충전 실증 사업을 진행 중으로,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던 충전소가 셀프 충전으로 24시간 운영된다면 충전소 추가 구축 없이도 충전 인프라 1.5배 확충 효과를 가짐
- 도요타의 미라이 등 외국 수소차 도입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야 함

출처 : 뉴스핌(2024.07.26.) [수소차 급제동] 수소버스 확대로는 한계...충전인프라 대폭 강화해야





크루즈 모드 믿고 달리다 ‘광’...올해만 9명 숨져

-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지난 3년 새 41.8% 증가하면서 도로교통공단은 ACC(Adaptive Cruise Control)* 의존도에 따른 위험성 당부

* ACC는 앞 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보조 기능

- 여름 휴가철(7~8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최근 5년 간 총 4017건이 발생했고, 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70명, 8,840명으로 집계

<최근 5년간 여름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관련 통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교통사고(건)	769	632	864	856	896
사망자(명)	36	46	27	33	28
부상자(명)	1756	1417	1794	1847	2030

- 지난해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요인으로는 전방주시 태만,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1.4%로 1위, 안전거리 미확보가 29%로 2위를 차지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ACC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전방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2020년부터 현재까지 ACC 사용과 관련된 사고는 총 19건으로 이 중 17명이 사망하였고, 올해에만 8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
- ACC는 건조한 노면과 평지, 일반적인 중량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비나 눈, 안개와 같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카메라와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 거리가 늘어나 앞차와의 거리 유지가 어렵고 탑승자가 많아 차량 무게가 늘어난 경우나 내리막길, 굽잇길에서도 사고 발생 위험이 큼
 - 또 전방 차량의 속도가 현저히 느리거나 정차한 경우 또는 공사 중이거나 사고처리 현장에서도 전방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추돌할 수 있음
- 따라서 ACC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인식 제한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함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충전온다’...아론, 중기부 팁스 선정

-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아론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정,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아론은 자체 개발한 관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국내 거주 환경에서 직접 찾아가 충전해주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제공
 - 중기부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 운영사가 먼저 유망한 스타트업에 1~2억 원을 초기 투자하면 중기부가 연구개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
 - 팁스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2년간 최대 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화 자금(1억 원)과 해외 마케팅(1억 원)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아론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충전온다’는 이동식 충전기와 IoT 기술을 이용해 공간 제약을 덜고 서비스 회전율 및 운영 효율성을 높임
 - ‘충전온다’는 전기차 사용자가 아론의 모바일 앱 충전온다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충전 기사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찾아가 이동식 충전기를 설치한 후 수거하는 방식
 - 충전기에 탑재된 IoT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현황을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아론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충전온다’>



출처 : 머니투데이(2024.08.14.)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충전온다’...아론, 중기부 팁스 선정



지쿠, 국내 PM업계 최초 '수소 전기 자전거' 자체 개발

- 지바이크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플랫폼 '지쿠'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인 수소 전기 자전거를 자체 개발하고 시제품을 완성
 - 지바이크의 수소 전기 자전거는 완충 시 주행거리가 70~80km로 기존 리튬 배터리 전기 자전거의 50km이상 보다 더 길어 성능이 우수
 - 또 리튬 배터리 과충전 및 고온으로 인한 화재 위험없이 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성하고 저압으로 압축된 수소 저장 용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안전성도 높음
 - 환경적 측면에서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연소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물만 배출하며 수소 연료전지는 공기를 흡입하여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 공기청정기 역할을 수행하는 등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지바이크의 수소 전기 자전거>



- 지바이크는 수소 모빌리티의 확대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시험주행을 통해 상용화를 준비
 - 지바이크 대표는 “저압수소 관련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현 국내 상황에서 지바이크의 전기 자전거의 개발은 저압수소 연료 시스템의 표준화를 이끌 것”이라 하며 기대

출처 : 매일경제(2024.08.01.) 지쿠, 국내 PM업계 최초 '수소 전기 자전거' 자체 개발...“상용화 준비 중”





섬 지역 드론배송 8월부터 본격 시행

- 2024년 8월 국내 여러 섬 지역에서 K-드론배송*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고립된 지역의 물류 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

* K-드론배송은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송거점,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아 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된 드론배송

- 7월 19일 제주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이 8월 중순 공주, 김천, 포천 등 9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9월 서산, 남원, 인천 및 부산으로 확대될 예정
- 주요 배송품목은 3kg 이내 배달음식과 생활용품이고 심장제세동기와 구급상자도 배치되어 있으며, 배송주기와 배송비는 지역과 물품에 따라 상이하지만 주 1~2회, 3,000~8,000원까지 다양하게 설정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① 섬 배송	② 공원 배송	③ 항만 배송
<p>○ 형태 : 유인섬과 육지간 생활 물품, 편의점물품, 치킨 등 배송, 농수산물 역배송</p> 	<p>○ 형태 : 도심공원, 캠핑장/야영장, 해수욕장, 관광지 등에 편의점물품, 치킨·김밥 등 배송</p> 	<p>○ 형태 : 항만 주변 정박 선박 및 해상 레저지역에 음식물과 선박용품, 낚시·생활용품 등 배송</p> 
○ 배송주기 : 구간당 주 1~2회	○ 배송주기 : 주중~주말	○ 배송주기 : 주중~주말
○ 배송비 : 5천원 (10km, 3kg/3호 박스 이내, 5kg/4호 박스 - 8천원) ※물품에 따라 별정 금액 적용될 수 있음	○ 배송비 : 3천원(5km, 3kg/3호 박스 이내) ※물품에 따라 별정 금액 적용될 수 있음	○ 배송비 : 배송업체 설정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과 함께 K-드론배송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 비가시권 드론비행의 안전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진행하고 지자체가 구축한 드론배송 거점과 드론 배달점, 드론상황실 설치와 운영 계획 등을 점검
- 드론배송업체가 항공안전체계에 기반한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고 드론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해 드론비행을 모니터링

- 일부 대기업들이 자사 제품 배송에 K-드론배송 체계를 이용하려 하는 등 향후 배송 품목이 더 다양해질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07.30.) 섬 지역 드론배송 8월부터 본격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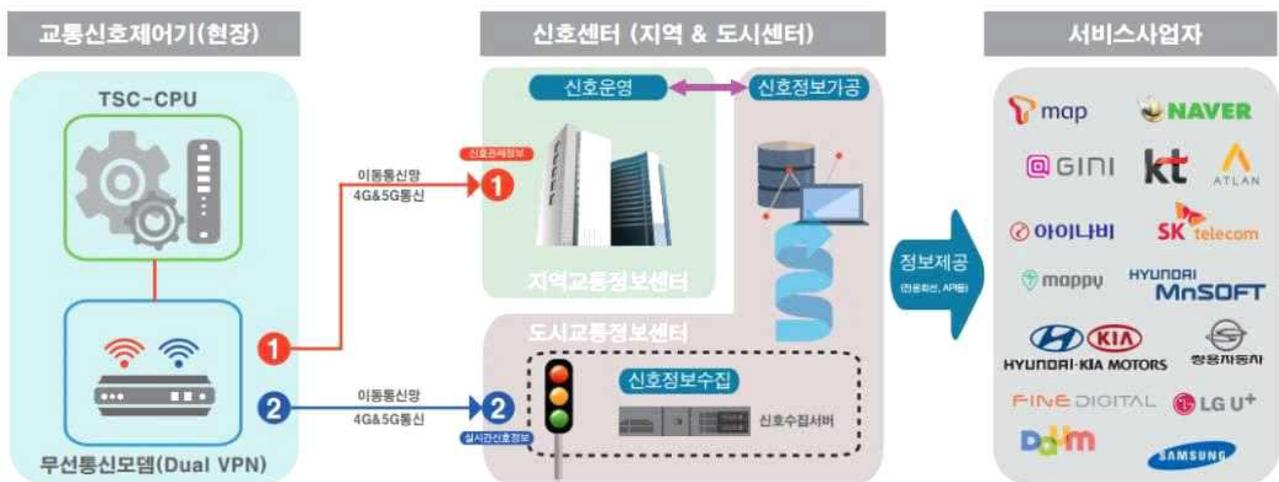
실외 이동로봇 운행 실증 시연회 개최

- 경찰청·의왕시·현대차·기아·도로교통공단은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하여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실증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침

- 지난해 10월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해 실외 이동로봇이 운행 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해 보행자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면서 로봇 안전 운행에 관심 고조
- 기존 로봇은 시야가 가려지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으나, 이번 시연에서 ‘실시간 교통 신호 정보 수집·제공 시스템’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관제 시스템’을 연동한 기술을 보임

* 실외 이동로봇 관제 시스템: 다수의 로봇을 실시간 점검과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며 로봇의 안전한 운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

<실시간 교통 신호 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구성도>



- 로봇은 신호등의 점멸 순서와 시간 등 상세 정보를 분석해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고 목적지까지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음
- 신호정보뿐 아니라 기존 로봇 자체 센서를 이용한 신호등 인식 시스템도 함께 활용하는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

- 경찰청은 실외 이동로봇을 활성화시켜 편리한 사회 서비스로 안전하게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힘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2024.08.09.) 경찰청이 제공한 실시간 교통 신호 정보 보행자와 함께 거닐 실외 이동로봇의 눈이 되다!

모빌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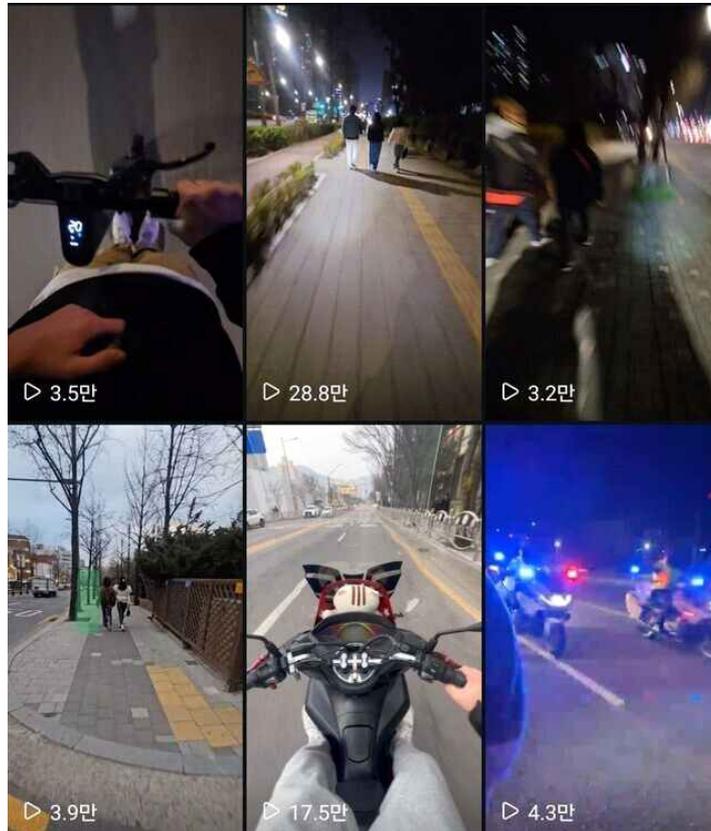




난폭 운전 일삼는 ‘따릉이 폭주족’...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들

- 최근 서울에서 '따릉이 폭주족 연맹(이하 따폭연)'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대규모 폭주 행위를 예고하다 지난 8일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됨
 - 따폭연의 운영자 고등학생 A군과 그 일당은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거나 경찰을 조롱하는 등의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업로드해옴
 - 운영자 A군은 지난 4일 오후 6시 따릉이 폭주족을 모아 용산구와 성동구 사이를 왕복하겠다고 예고하고 오는 10일 마포구와 강남구 등지에서도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여 신고를 급증하게 만들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시킴

<인스타그램 계정 '따릉이 폭주족 연맹'에 게시된 영상>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집단 폭주 행동을 제재할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622명이 다쳤으며 차량 단독 교통사고 치사율*의 경우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보다 4.3배 높게 나타남
 - * 치사율(명/100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출처 : 시선뉴스(2024.08.07.) 난폭 운전 일삼는 ‘따릉이 폭주족’...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들





캠핑장엔 장작·생수 나르는 ‘개미’도 있다

- 인천 송도국제캠핑장의 3만2,000m²(약 9,680평) 규모의 캠핑장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 4대를 도입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배달에 운영
 - 이용객이 캠핑장 내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필품을 주문하면 배달하는 방식으로
 - 배송 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인력 배치가 필요 없고 최대 시속 15km에 30kg까지 적재가 가능해 무거운 물이나 장작도 편하게 배달이 가능
- 개미는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가 개발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으로 안전을 위해 로보티즈가 개미의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제어
 - 개미는 딥러닝 기반 시와 카메라, 초음파, 라이다 등 센서를 통해 스스로 주변 장애물과 도로, 보행자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해 목적지까지 이동
 - 개미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사에 있는 관제부서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 개미가 카메라를 통해 보는 장면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가 인천 송도국제캠핑장에서 배달 중>



- 이처럼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활용처가 다양해지고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및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

출처 : 경향신문(2024.08.21.) 캠핑장엔 장작·생수 나르는 ‘개미’도 있다





현대차-기아, 인도네시아서 AAM 사업 첫 발

-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7월 2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신수도 인근 사마란다 공항에서 도심항공모빌리티(AAM) 기술 실증 행사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AAM 사업을 시작
 - 현대차와 기아의 전동화 기술인 분산전기추진*을 활용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AAM 시제기 '오파브(OPPAV)'는 실증 비행에서 약 2km를 비행 후 안전하게 착륙
 - * 기체에 있는 여러 개의 모터와 배터리를 독립 구동하는 기술
 - 항공 모빌리티를 포함한 통합 교통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플랫폼 '셔클' 앱을 소개하며, 앱 기능 중 하나인 현대차 '카운티 EV' 버스 호출 기능을 시연하여 행사장으로 이동
- 인도네시아는 약 18,000여 개의 군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로 교통망이 발달하기 어려워 섬 사이의 이동 수단으로서 AAM 활용 가능성이 큼

<인도네시아 교통부, 신수도청 등 정부 및 현대차-기아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AAM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미래항공모빌리티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체 개발 외에도 항공 산업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현대차·기아의 AAM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과 결합하여 공항 간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향후 AAM 기술 상용화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

출처 : 매일경제(2024.07.29.) 현대차·기아, 인도네시아서 AAM 사업 첫 발

